

# 전시·공연으로 만나는 미디어아트

### 광주문화재단 29일까지 레지던스 입주 작가전 뉴폼스 '교감' 전 15~28일...발레·음악 결합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다양한 전시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아트 결과물 전시와 융복합 공연 작품의 발표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 제7기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 작가 전시와 융·복합 예술 창작공간 '뉴폼스'의 작품전이 그것으로, 이들 행사는 독특한 상상력을 모티브로 한다.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 작가 결과물 전시  
광주문화재단 '제7기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 작가 6명(팀)이 한 해 결과물을 보여주는 전시를 진행한다.

오는 29일까지 미디어338에서 'Trace(흔적)'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각자 개성을 담은 작업 결과물이다.

먼저 김혜경 작가는 격자 안에 담겨 있던 고대의 보물들을 디지털 매핑과 LED, 크리스탈의 굴절효과를 이용해 발현시킨 '미디어 다보격(多寶格)'을 선보인다. 다보격은 중국 청나라 때 도자기를 비롯한 보물을 빛나게 하는 기능을 지녔던 수납장이다.

문창환 작가의 영상작품 '2018-1928'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가씨는 한글사랑운동에 초점을 맞췄으며 '여행'을 주제로 한 신창우 작가의 작품은 '나비의 꿈을 꾸는 장자'를 떠올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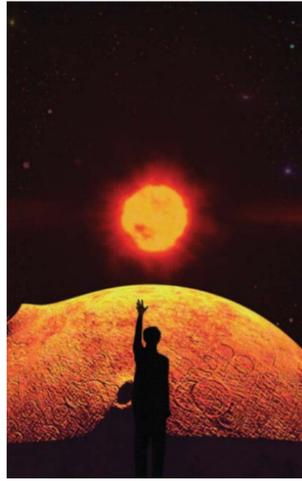
폴바주카 작가의 '이것은 크리스마스트리가 아니다'는 마이크로 초로 쪼개지고 부러져 사운드 아트로 표현되며 최하람 작가는 환경 소음 데이터를 시각, 청각 데이터로 전환해 소음의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을 표현한 'Practical node'를 선보인다. 다이엘(안유자, 변수진)의 작품은 '찬란한 존재의 빛'이다. 레이저 빛의 밝기는 선명해 존재감이 확연해 관람객들은 환상적인 사색의 정원과 하나가 된다. 문의 062-670-7493.



다이엘 팀의 '찬란한 존재의 빛'.

◇'뉴폼스' 융복합 공연 작품 성과 발표전  
광주 예술의 거리 융·복합 예술 창작공간 '뉴폼스'는 오는 15-28일 성과 발표전 '교감'을 연다.

지난 8월 진시영 작가를 주축으로 설립된 '뉴폼스'는 미디어아트 분야의 창·제작자를 육성하며 '인공의 빛'과 '자연의 빛'을 주제로 '뉴폼', '패스', '조월' 등 공연 작품을 제작·발표해왔다. 광주문화재단 레지던스 지원사업의 하나로 열리는 발표전에서는 안무가·작곡가·사진작가 등 상주 작가 4명의 융·복합 예술작품을 만난다.



조기영이 안무한 '어린왕자'.

'터전'이라는 주제로 갯벌과 그물, 양식장을 카메라 앵글에 담았다. 이 작가는 드론을 띄워 바다생물의 터전인 갯벌과 양식장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또 이승호 작가는 '자각몽'(自覺夢)에서 영감을 받아 융·복합 공연 '조월-꿈 너머 꿈' 시놉시스를 소설화했다.

한편 뉴폼스 레지던스 상주 작가들은 오는 27일 나주혁신도시 한 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조월 II' 공연을 진행한다. 문의 062-223-065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17일 무료 송년음악회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음악회가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김광복 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의 고별 무대이기도 한 이번 공연은 판소리 심정가 이수자인 박인혜(국가무형문화재 5호·사진)의 사회로 진행된다.



한국 북한 작곡가 공영송의 곡을 편곡한 '봄-초소의 봄'을 가야금 연주자 김미경과 협연하며 무대를 연다. 이어 서영호와 '김일규류 아쟁산조 협주곡'을 연주한다. 기승전결이 분명한 이곡은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으로 펼쳐진다. 또 진도 삼현음악을 무용가 서영의 춤사위를 곁들여 무대에 올린다.

한국 가요와 이탈리아 칸초네 등과 접목한 무대도 진행된다. 광주지역 팝페라 성악팀 '빅맨싱어즈'는 국악관현악단과 칸초네 '푸니쿨리 푸니쿨라', 최백호의 '남산에 대하여', 노라조의 '슈퍼맨' 등을 선보인다.

김광복 지휘자는 '창부타령', '한오백년', '방아타령' 등으로 피리협주곡 무대를 선보인다. 박인혜는 창을 위한 관현악곡 '더 로드-제비노정기'를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국악관현악단이 '굿패마루'와 함께 설장구협주곡 '소나기'를 연주하며 무대를 마무리한다. 공연 한시간 전부터 선착순 무료 입장. 문의 062-613-824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THE VIENNA BERLIN MUSIC CLUB

베를린 필, 빈 필 단원으로 구성된 경이로운 앙상블

30% classical + 20% jazz + 15% folk + 15% pop + 15% latin + 5% others

# PHILHARMONIX

## 2018 필하모닉스 내한공연

2018.12.17 (월)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8.12.18 (화) 오후 8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8.12.19 (수) 오후 7시 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주최 광주일보 인천문화예술회관 경기도문화의전당  
제작 WCN YOUNGSAN  
후원 CJ ENM

## '예술의 거리 작가회' 첫번째 그룹전

### 19일까지 무등갤러리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 동지를 틀고 작업하는 작가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올 3월 발족한 '예술의 거리 작가회' (회장 최재영)다. 평면 회화 작가를 중심으로 공예, 도예, 미디어 아트 분야의 작가가 합류해 출범했다. 모임 결성 후 총장로 축제에 참여해 '춘하추동'(각 500호) 시리즈를 공동 작업, 동구정에 설치하고 창작 스튜디오 오픈행사도 진행했던 회원들이 첫번째 그룹전을 마련했다. 오는 19일까지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리는 '예술길을 걷는 화가들'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김병택·김선미·김옥수·김재현·김정환·박지택·오건택·오지선·유수종·이상호·이성임·이정래·정영욱·정해영·조규철·조근호·조정태·주성범·진시영·최향·한승희 작가 등 예술의 거리에 작업실을 갖고 있는 22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전시에서는 서양화·한국화·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며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하기 좋은 2-3호(50만원 이하) 크기의 소품을 따로 선보이



최재영 작 'Boy'

는 코너도 마련했다. 그밖에 작가들이 각자의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도 전시 중이다. 문의 062-236-25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사진 공모 '토마토 소스와 된장' 대상

광주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에서 유현석 씨의 '토마토 소스와 된장' (사진)이 대상을 차지했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우리 사회 안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 총 110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사진 및 문화다양성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15편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상금 100만원)을 수상한 '토마토 소스와 된장'은 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그리고 두 딸의 식탁을 촬영한 작품으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외에 금상(80만원) '따뜻한 어울림', 은상(50만원) '꼬마친구들', '한강 다녀오는 길', '우리는 모두 친구' 등 3점이 선정됐으며 그 외 장려상은 10점의 작품이 뽑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ACC 시네마테크 앙코르

### 15~16일 라이브러리파크 극장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시네마테크'가 오는 15-16일 라이브러리파크 극장 3에서 올해 사랑받았던 상영작들을 다시 상영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ACC 시네마테크 앙코르'에서는 먼저 15일 오후 2시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의

삶을 다룬 '발터 벤야민에 대한 13막의 루도 드라마' (감독 카를로스 페랑)를 상영한다. 이후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로얄 발레단 공연영상(오후 4시)이 이어진다.

다음날에는 150여 년간 4000장의 후지산 사진을 모아 편집한 '어센트'(감독 피오나 난)이 상영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화려한 '호두까기 인형' 공연으로 알려진 뉴욕 시티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을 스크린으로 만난다. 선착순 무료 입장. 문화전당 홈페이지(acc.go.kr) 참조. /백희준 기자 bhj@